한국사는 아직 '식민사관'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

이덕일 지음

'한사군' '임나일본부' 설 추종자들

'식민사학 카르텔' 만들어

버젓이 한국 역사학계 주류로 활동

"조선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모든 인물 역사에 대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선 총독 사이코 마코토의 말 중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것을 심어 놓았다. 그들 스스로 "조선 조상의 무능, 악행을 들추고 과장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며 16년 동안 만들어 낸 16권의 '조선사'가 그 증거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는 보편적인 정치적 논쟁을 '당쟁'으로, 엄연한 역사인 고조선을 '단군신화'로,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를 특정 성씨들의 집단에 불과한 '이씨조선'(이조)으로 만들어버렸다.

무서운 것은 이 같은 '식민사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역사학자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식민사관에 젖은 우리 역사 학계에 돌을 던졌다. 이 소장은 신간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통해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한 채 식민사관의 편에 서서 역사를 흐려 온 식민사학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식민사관은 크게 두 가지다. 한사군의 위치와 임나일본부의 진위 여부다. 아직도 이런 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수' 직함을 달고 강단에서 식민사관을 부르짖고 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말뿐이 아니라, 식민사관을 전파해 온 사학자들의 이름도 책에 등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병도, 신석호, 서영수, 노태돈, 송호정 등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실제로 지배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 역사다.

일본이 심어 놓은 대포보다 더 무서운 거짓 역사가 이들에 의해 현대까지 이어지고, 되풀이되고 있는 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슬픔이다.

실제 동북아역사재단이 10억원의 세금을 쓰며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펴낸 '한국 고대사' 관련 6권의 영문 책에는 고조선이 빠지고 한사군이 들어가 있다. 또 삼국시대가 빠지고 가야와 삼한이 들어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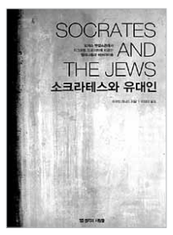
저자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식민사학자들이 학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무시하고 '식민사학 카르텔'을 만들어 식민사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을 매장하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그리고 통탄한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자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학자들을 존경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

또 묻는다. 조선총독부의 관점, 독립 운동가의 관점 중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싶은지를. 해방 70여 년이 지난 지금,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자는 진지하게 묻는다. 〈만권당·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집, 인간이 만든 자연=같은 듯 다른 듯 삶을 디자인한 동양 3국 집의 미학. 동양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18세기 중엽 한·중·일 3국의 수도에 편재돼 있던 가옥을 기준으로 세 민족의 삶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대륙과 반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대륙기질, 반도기질, 시마곤조(島根性)라는 지형적 특성이 빚어낸 자연의 미학은 그 독특한 가옥양식에 그대로 반영됐다. 〈책보세·1만8000원〉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한국시민운동의 궤적을 살펴보는 책. 저자 차병직 변호사는 이데올로기 논쟁보다는 한국 현대사의 사건과 그 과정에서의 시민운동 단체 활약에 주목한다. 사법부 최대 스캔들인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부터 2000년 대선정국을 뒤흔든 낙천·낙선운동, 경제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소액주주운동, 시민들의 발랄한 저항의 전범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와 1인 시위 등 가장 최근의 한국현대사를 체험하는 느낌이다. 〈창비·1만5000원〉

▲소크라테스와 유대인=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로 대립과 갈등을 번갈아 하며, 서양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 이 두 사상간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이 두 사상을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병행돼 오고 있다. 이 책은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이 두 사상을 철학적 시각에서 그 배경에서 외형적 모습까지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생각과 사람들·2만3000원〉

▲다함이 없는 이야기=장경철과 민혜숙의 지속적인 우정과 상호작용의 흔적이 묵상과 시로 탄생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속에 남게 된 흔적들이 각각의 묵상을 통해 책의 전반부에는 장경철의 산문으로, 후반부에는 민혜숙의 시로 정리됐다. '길에서 누리는 행복', '함께하는 삶의 능력' 등 총 6개의 장으로 이뤄진 책은 "좋은 착상은 수많은 상호작용과 횟수의 검증을 통해 찾아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더드림·1만1000원〉

▲반성된 미래=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가치 설정 및 제도 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다룬 책들을 세상에 선보여 왔다. 이번 책은 이 전통을 잇는 한편, "우리 사회가 장기보다는 단기, 전체보다는 부분, 깊이보다는 넓이에 갇힌 사회가 됐다"는 반성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책에서는 그간 경제가치에 억압돼 왔지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여러 가치를 숙고한다. 〈후마니타스·2만원〉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북한이 외교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해왔고, 그 결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성공 혹은 실패를 했는지, 북한이 이루고자 한 정책목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밝힌다. 이를 통해 북한 외교의 배경과 역사적 맥락,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과거로부터 학습한 핵 능력, 미사일 능력, 특수전 능력, 육해공군력 등의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울 아카데미·3만9000원〉

어린이 책

▲이순신 全勝(전승) 불멸의 기록=한국 최초의 SF 만화 '라이파이'의 작가 김산호가 이번에는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에 남긴 불멸의 기록들을 그려냈다. 만화가 특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150여 점의 역사회화 작품과 글을 통해, 연전연승의 신화를 쓴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 승리의 기록들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준다. 〈한울·2만5000원〉

▲큰집 작은집=매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며 혼자 외톨이처럼 지내던 큰 곰과 작은 쥐가 친구가 되어 가는 따뜻한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 준다. 큰 곰과 작은 쥐의 일상을 담은 그림을 보는 재미도 풍성하다. 〈꿈터·1만2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열하일기=장장 5개월 동안 이어진 박지원의 청나라 여행기를 담은 고전. 단순히 청나라라는 이국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난생처음 접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깊은 사유와 반성, 종교와 사회제도에 대한 편견 없는 통찰까지 엿볼 수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여행기다. 〈보물창고·1만1500원〉

▲쉬운 사회 그림책 1=초등 1~2학년 어린이들이 '사회'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인공 하늘이가 동네 지도를 보며 삼촌 집까지 찾아가는 동안 지도 읽는 법, 기호, 나침반 보는 법 등을 배우고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가는 동안에는 교통수단, 지형, 주거 형태 등을 등을 익힐 수 있다. 〈주니어 김영사·1만원〉

행복한 책 읽기

정이현 '말하자면 좋은 사람'
(마음산책 刊)

예쁜 구월 하늘빛 아래서 어여쁜 어느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다. 그 차는 커피나 홍차 보다는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보이는 색과 향이 고운 화차라면 어떨까.

이 책은 작가 정이현이 건네는 열한 개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의 말처럼 단편이면서 콩트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에프터눈 차를 즐기는 티타임 같은 책이다. 격조 있는 멋진 찻집에 앉아 티 테이블에 놓인 3단 트레이에 예쁜 티팟이 세팅된 차를 마시는 순간처럼 짧다.

색이 고운 화차든 오후 2시에 마시는 에프터눈 차든 차 마시는 시간은 그리 길진 않다. 하지만 차 한 잔의 여유는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자 기회다.

이 짧은 소설집은 단편으로도 부족하다. 책 표지에 아예 소설집이 아닌 '정이현 짧은 소설'이라고 표기해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작가만의 날렵한 시선으로 도시인들의 삶과 고민을 잘 표현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지나쳤는데 한 번은 봤음직한 이야기, 일상처럼 담담하다가도 어느새 동요되고 마는 술렁임, 우리 인생에 있어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목소리에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배어 있다.

순간에 대한 짧은 묘미

가을에 부는 바람처럼 서늘하다가도 곧 다정하게 내밀어주는 손이 따뜻하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되 혼자 가는 우리가 어쩌면 모두 좋은 사람들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취업 준비생, SNS의 세계에서 가짜 '나'를 살아온 누군가의 앙똥한 아내, 뾰족한 모서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 불안한 청춘, 츱고 겁에 질린 사람이 저 혼자뿐인 줄 아는 스물두 살 등 그들은 모두 '말하자면 좋은 사람'들인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널려있다.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보면 견디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모아져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다.

단편 중에서 '이미자를 만나러 가다'는 일명 '왕따'에 대한 이야기다. 이미자는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는 성인이 되어 밴드에서 댓글이 가장 많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창회에 나갔지만 '따'였던 그녀의 모습은 눈에 띄기는커녕 끝내 구별할 수 없었다. 아니 영원히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초등학교의 추억은 고스란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몸만 키워온 것 같다는 소심함에 공감표를 던지게 된다.

요즘은 장르에 상관없이 작품 자체의 형식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출판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작품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식은 희미해졌고 눈에 띄는 표지와 예쁜 삽화를 중간에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고 독자들의 눈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독자는 작가들이 실천적 덕목에 중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끝으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에게 함민복 시인의 '가을' 전문을 띄운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